

제3장

여성가구주 가구의 특성 및 빈곤 분석



박시내

제1절 서론

최근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의 급증으로 인하여 취약계층 통계 확충에 대한 수요가 대내외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성가구주 가구는 빈곤의 위험이 높은 집단으로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 논쟁¹⁾과 함께 이들의 경제적 취약성을 실증적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많이 개진되어 왔다(석재은, 2006). ‘취약계층’이라 함은 가령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 같은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놓여있는 집단으로 각별한 정책적 지원을 요하는 계층을 말한다. 그러나 사회 취약계층에 대하여 뚜렷한 학문적·정책적 정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취약계층’이라는 것이 사실상 정책 대상 집단으로서 범주화된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여성은 경제적으로 남성에 비해 취약하다. 특히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및 취업생활의 유지는 남성보다 비교 열위의 위치에 놓여 있다. 최근 여성 빈곤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증가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 5가구 중 한 가구(22.2%)는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이다. 여성가구주 가구는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였는데, 1990년 전체 가구의 15.7%가 여성가구주 가구였던 것이 2000년에는 18.5%, 2005년에는 21.7%, 2010년 22.2%로 전체 가구 중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왔다.

여성가구주 가구 증가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한 여성노인 단독 가구의 증가이다. 여성가구주 가구 중 60세 이상

1) 빈곤화 정도의 성별 차이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Diana Pearce(1976)의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 개념의 도입으로 처음 제기되었으며, 국내에서도 빈곤 위험의 성별차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개진되어왔다(남정림, 1991; 김영란, 1997; 이해경, 1998; 유정원, 2001; 여지영, 2002; 박영란, 2003; 박재규, 2003; 석재은, 2006).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여성과 남성의 빈곤 위험의 차이를 여성가구주와 남성가구주의 빈곤 위험 차이로 보고, 개인단위의 여성과 남성의 빈곤 위험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는 행하지 않고 있다.

노인여성 가구주 가구의 비중은 2000년 33.9%였으나 2010년 35.8%, 2020년 41.2%, 2030년에는 49.6%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즉, 2030년이 되면 여성 가구주 가구 중 절반이 노인여성 가구주 가구라는 의미이다. 한편으로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가구주의 비중이 증가하게 되었는데, 특히 만 18세 이전의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여성가구주 가구(모자가구)는 각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가구주 가구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복지 중심의 저소득, 한부모 가구에 집중되어 있다(김혜원 외, 2009). ‘한부모가족지원법’이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의 기본법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기본법의 내용은 한부모 보호시설 운영 및 아동양육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들의 고용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여성가구주의 고용 및 빈곤에 대한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되기 위해서는 고용과 복지가 연계된 정책이 매우 필요하다. 선진국의 여성가구주 복지 정책은 복지급여 제공 외에 고용 정책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재구조화하여 큰 성과를 보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 같은 정책적 노력은 아직 시도되고 있지 않다.

여성가구주 가구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가구주의 경제활동 특성 및 가구 특성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대상자를 식별하고, 적합한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대상자에 대한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성가구주 가구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성가구주 개인의 노동시장 특성 및 가구소득 및 소비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여성가구주가 어떠한 개인특성을 갖고 있으며,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노동시장 정착도는 어떠한지, 직·산업 분포 및 임금수준은 어떠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필요로 한다. 또한 여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소득수준 및 빈곤수준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통계분석을 위해서 본 연구는 『장래인구추계』 자료 및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가계동향조사』가 결합된 연계통계 자료를 활용하였다.²⁾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2절에서는 여성가구주 가구에 대한 기존문헌을 검토하고, 본 연구의 분석대상 및 준거집단(*reference group*)을 정의하고자 한다. 3절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자료를 소개하고, 분석대상자의 특성을 간략히 기술한다. 4절에서는 장래인구추계 및 연계자료의 분석을 통해 여성가구주 가구의 노동시장 및 가구특성을 검토하고, 빈곤결정요인을 분석, 기술한다. 5절에서는 연구를 요약하고, 정책적 함의 및 한계점을 제시한다.

2) 개인단위의 micro-data와 가구단위 micro-data를 결합하면 보다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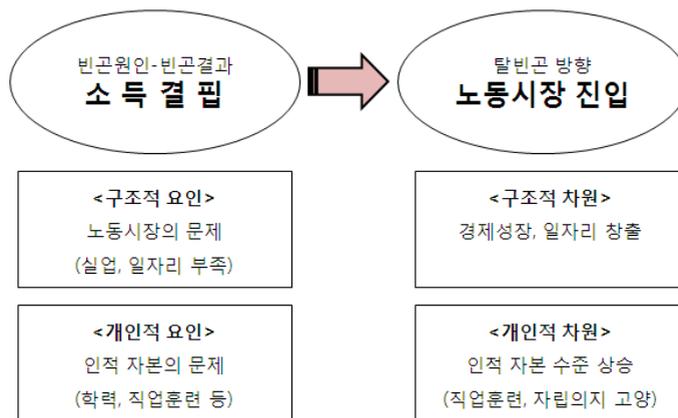


제2절 이론검토 및 개념정의

1. 이론검토

여성가구주의 경제적 빈곤에 관한 연구는 크게 ‘경제주의적 관점’과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관점으로 양분되어 설명된다. 전자는 결과로서의 빈곤을 측정함에 있어서 통계자료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³⁾ 빈곤에 대한 경제주의적 관점은 [그림 3-1]과 같다. ‘경제주의적 관점’은 여성가구주의 빈곤은 소득의 결핍으로 야기되는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궁극적으로 실업이나 일자리 부족 같은 노동시장의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하게 된다. 경제주의적 관점에서 경제적 성장은 빈곤을 축소시키는 방편이며, 탈빈곤 정책은 일자리 창출이나 실업구제 같은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개별 근로자들의 인적자본이나 직업훈련 등에 대한 투자는 임금률에 비례하며, 이러한 개인적 요인들은 노동시장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모델에서 빈곤 발생 원인으로 노동시장의 문제(구조적 요인)를 다루긴 하지만, 결국 빈곤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는 것으로 설명하게 된다.

특히 경제주의적 접근은 빈곤의 원인과 결과를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며, 분석단위는



출처 : 정미숙(2007), 저소득 여성가구주의 가족 경험과 빈곤화 과정에 대한 연구

[그림 3-1] 빈곤에 대한 경제주의적 관점

3) 빈곤가구의 구분의 대표적인 기준은 빈곤선(poverty line)을 통해 빈곤과 비빈곤을 구분하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빈곤연구는 빈곤을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가구소득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노동시장이나, 빈곤측정은 가구의 평균소득을 사용하게 된다. 빈곤의 원인과 결과를 경제적인 차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탈빈곤 역시 노동시장 중심의 대안을 모색하게 되는 것이다.

경제주의적 관점은 여성빈곤 문제의 핵심적인 요소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주의자들의 강한 비판을 받아왔다(Shaffer, 2002; Ruspini, 2001; Fukuda-Parr, 1999; Kabeer, 1997; Edward & Duncan, 1996). 여성빈곤에 대한 경제주의적 관점에 대한 여성주의자들의 비판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가구단위의 빈곤측정에 대한 비판이다. 가구단위의 빈곤측정은 가구 내 모든 구성원들이 동등한 자원을 공유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여성주의자들은 가구 내 구성원들 간 자원의 분배가 동등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처럼 가구 내 자원이 불평등하게 분배된다면 가구단위의 빈곤측정은 여성빈곤을 과소측정하고, 남성빈곤을 과다 측정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실례로 Ruspini(2001; 107)는 실증연구를 통해 빈곤을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단위로 측정했을 때 성별 빈곤율의 격차가 더 커짐을 밝혔다.⁴⁾

둘째, 빈곤원인과 결과를 소득으로만 규정한 데에 대한 비판이다. 경제주의적 관점은 빈곤을 물질 자원의 결핍상태로만 규정하여 여성빈곤의 다양한 매커니즘을 포착하지 못한다고 여성주의자들은 비판한다. 여성주의자들은 여성들이 빈곤에 이르는 과정과 빈곤 재생산의 요인에 대한 연구가 부재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빈곤과정에서의 비물질적 요인, 가령 여성의 무급가사노동, 돌봄 노동, 가구 내 자원형성 및 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관습의 문제, 사회적 관계망 등이 빈곤규정에 고려되지 않음을 지적한다.

셋째, 빈곤의 성중립성(性中立性)에 대한 비판이다. 경제주의적 빈곤 접근은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를 빈곤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탈빈곤 정책은 일자리 창출 정책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러나 여성들이 일을 하지 않아 빈곤한 것은 아니며, 일하고 있음에도 빈곤함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의 제고가 여성의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가? Duncan & Edwards(1997)는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할수록 여성빈곤이 축소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가정이 많은 서구 국가들의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가정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한다.⁵⁾

실례로 Pearce(1990)은 미국사회의 빈곤문제가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
- 4) 독일에서의 실증연구에 의하면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의 빈곤율 측정 결과, 여성가구주 가구 빈곤율은 12.1%, 남성가구주 가구 빈곤율은 9.7%로 나타나는 반면, 개인 단위의 빈곤율 측정 시 여성 빈곤율은 20.8%, 남성 빈곤율은 5.1%로 성별 빈곤율 격차가 매우 커진다. 이 같은 결과는 개인단위의 빈곤측정이 주로 취업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측정되기 때문이다. 즉 시장임금 수준은 취업형태 등의 영향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
- 5) 이러한 가정은 다음의 세 가지 논리로 반박된다. 첫째, 고용수준과 소득수준을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은 단순한 논리이다. 둘째, 고용에만 기반한 접근은 부적절하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적 부분의 소득이전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단순히 고용에 기반한 가정은 여성가구주가 어머니이거나 근로자이거나의 이분법적 선택을 강요한다.



‘빈곤의 여성화’라는 개념을 소개하였는데, 20년이 지난 후에도 빈곤의 여성화가 극복되지 못한 것은 바로 노동시장 중심의 빈곤정책에 기인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사회에서 1960~1970년대 빈곤퇴치 운동의 결과로 성인 남성들과 남성 청소년 및 고령자는 탈빈곤 프로그램을 통해 빈곤층에서 탈피한 반면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률은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Pearce는 여성이 경험하는 빈곤이 남성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미국의 탈빈곤 프로그램의 실패가 남성가장 모델에 기초하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여성주의자들은 여성의 빈곤을 사회적 배제의 관점으로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여성의 빈곤이 남성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은 빈곤화의 과정에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요인들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관점은 유럽에서 빈곤의 접근에 있어 기존의 경제주의적 관점에 대한 대안적인 패러다임을 제시하면서 발달되었다. 1990년대 이후 유럽은 시장경제의 변화로 실업의 장기화·구조화, 고용의 불안정 증대, 사회적 보호의 한계로 파생된 새로운 빈곤의 유형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기존의 경제주의적 접근으로 빈곤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전통적인 빈곤정의(예컨대 일정수준 이하의 소득으로 정의되는 빈곤선)를 다차원적으로 확장하여 경제적 요인(소득 및 노동시장 상황) 외에 교육, 보건, 환경, 주거, 문화 등 다차원적인 영역에서 사회적 박탈이 존재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경제주의적 관점이 빈곤의 배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면, 사회적 배제의 관점은 빈곤의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사회적 배제의 관점은 빈곤의 개념을 사회적, 정치적 영역까지 확대하여 빈곤의 다차원적 성격을 강조하기 때문에 여성빈곤에 대한 정책 방향으로 사회통합과 사회권 보장을 강조한다. 또한 사회적 배제의 관점은 일차적으로 관계적인 이슈에 초점을 맞춘다. 부적절한 사회적 참여, 사회적 통합의 부족, 권력의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배제는 그 사회의 조직과 공동체로부터 이탈되는 과정이며, 권리와 의무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한다. 경제주의적 빈곤개념이 자유주의적 시각에 기초하고 있는 것에 반해,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사회가 위계적인 집단들이 상호 권리와 의무에 의해 함께 연결된 집합체임을 강조하고, 사회적 배제는 이러한 질서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임을 강조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표 3-1>과 같다. 경제주의적 관점은 자유주의적 시각에 기반하여 빈곤의 결과와 배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가구소득을 통해 빈곤계층을 설정하고, 노동시장을 중요한 분석단위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방향 역시 노동시장 진입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한다. 반면 사회적 배제의 관점은 위계화된 권력관계가 작동되는 사회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빈곤분석의 초점은 빈곤과정에서 작

〈표 3-1〉 여성빈곤에 대한 경제주의적 관점과 사회적 배제의 관점

	경제주의적 관점	사회적 배제의 관점
분석시각	완전경쟁시장에 참여하는 원자화된 개인	권력관계가 작동되는 위계화된 집단과 개인
분석초점	배분의 문제 및 빈곤의 결과	관계의 문제 및 빈곤의 과정
분석단위	노동시장, 가구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영역, 개인
정책방향	노동시장 진입(고용)	사회적 통합과 사회권 보장

동되는 관계의 문제이며, 분석단위로 경제적 영역과 함께 사회적, 정치적 영역을 포괄한다. 따라서 여성빈곤에 대한 사회적 배제 관점의 정책방향은 궁극적인 사회통합과 사회권 보장에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논의들은 주로 서구 선진 국가들의 사례로 우리의 실정과는 다소 괴리가 있다. 또한 빈곤에 대한 경제주의적 접근은 주류인 반면 사회적 배제의 관점은 비주류이며 급진적이다. 우리나라의 여성가구주 가구 지원 정책은 2000년대 중반 취약계층 지원정책으로부터 시작되었다.⁶⁾ 사회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여성장애인, 여성노숙자, 여성 가구주 등 취약계층 여성의 빈곤이 더욱 심각해졌지만,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란 측면에서 성인지(性認知)적인 관점이 결여된 정책이 수립되었고, 결과적으로 취약계층 여성의 경우 정책의 우선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2006년 3월 취약계층 여성지원 업무의 신설에 따른 정책개발 및 자문역할 등을 수행할 협의회를 구성 운영기로 결정하고, 취약계층 여성의 대상별 특성에 맞는 정책의 개발 및 추진을 위해 2006년 3월 「취약계층 여성정책협의회 규정」을 제정·시행하였다. 이 정책은 무엇보다도 취약계층 여성의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회서비스를 개발·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⁷⁾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여성가구주에 대한 지원정책은 그 역사가 매우 짧으며, 고용과 복지의 연계보다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치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6) 『취약계층 여성정책협의회 규정』(여성가족부 훈령 제 13호)

7) 주요 추진내용은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확대 지원, 여성출소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여성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접근권 강화,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과제 발굴 및 지원 대책 수립 등으로 요약된다.



2. 개념정의

여성가구주 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책대상자의 식별이 선결되어야 한다. 기존의 여성 가장 가구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보면 여성한부모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모자가구 등 다양한 개념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여성이 가구주라는 면에서는 동일하나, 배우자의 유무나 자녀의 유무 등에 따라서 다른 범위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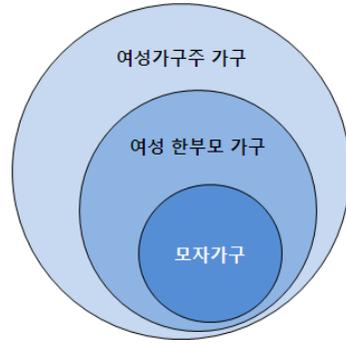
<표 3-2>와 [그림 3-2]는 여성가구주 가구와 여성한부모 가구, 모자가구의 범위를 정의한 것이다. ‘여성가구주 가구’는 세 집단 중 포괄범위가 가장 크다. 여성가구주 가구는 혼인상태, 자녀유무 및 연령 등에 따라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된다. 여성가구주 가구에는 별저가구원을 비롯한 유배우 가구원을 포함하며, 미혼여성 1인가구도 포함된다. 여성가구주 가구를 정책지원 대상으로 삼았을 경우 문제시 되는 것은 유배우 여성가구주 가구이다. 정책적 지원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여성이 가구주가 되어 생계를 책임지게 된 것은 남성의 경제활동능력의 결여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본다. 한편 정책적 지원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유배우 여성가구주의 경우 남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의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한다.⁸⁾ ‘여성한부모 가구’란 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자녀가 미혼인 경우로 한정했기 때문에 여성가구주(모)의 연령은 65세 이전일 가능성이 크다. 여성한부모 가구는 배우자의 존재 여부에 따라 유배우 여성한부모 가구와 무배우 여성한부모 가구로 구분한다.

‘모자가구’는 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 중 자녀의 연령이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인 가구를 말한다. 모자가구는 여성가구주(모)의 혼인상태에 따라 무배우 모자가구와 유배우 모자가구로 구분될 수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모자가구, 부자가구는 한부모 가구 중에서 미혼자녀의 연령이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인 경우를 지칭한다. 이때 한부모 가구는 이혼이나 사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지만,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와 배우자가 정신이나 신체적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8) 이 같은 견해는 ‘남성생계부양 이데올로기’에 기인한다.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고,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형태가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전형적인 가족 형태가 강하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표 3-2> 여성가구주 가구와 여성한부모 가구, 모자가구 개념정의

	혼인상태 기준 (배우자 기준)	자녀 기준	배우자 소득 기여도
① 여성가구주 가구	미혼	자녀 있음	있음
	유배우	자녀 없음	없음
	무배우(이혼·사별)		
② 여성한부모 가구	비동거	자녀 있음	있음
	무배우(이혼·사별)		없음
③ 모자가구	비동거	자녀 있음	있음
	무배우(이혼·사별)	(미혼, 18세 미만)	없음



[그림 3-2] 여성가구주, 여성 한부모, 모자가구의 범위

<표 3-3>은 여성가구주 가구, 여성한부모 가구별 규모이다. 『장래가구추계』에 의하면 여성가구주 가구가 전체 가구 중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약 268만여 가구로 전체 가구의 18.5%를 차지하였던 것이 2005년 347만여 가구(21.7%), 2010년 381만여 가구(22.2%)로 2010년에는 5가구 중 1가구가 여성가구주임을 알 수 있다. 한편 한부모 가구는 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여성한부모 가구와 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남성한부모 가구로 구분되는데, 여성한부모 가구는 2000년 전체 가구 중 6.3%, 2005년 6.8%, 2010년 6.8%로 시기별 전체 가구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한편 남성한부모 가구는 2010년 32만 가구로 전체 가구 중 1.9%를 차지하며, 여성한부모 가구의 3분의 1 수준에 못 미친다.

<표 3-3> 여성가구주 가구, 여성한부모 가구의 규모

(단위 : 가구 수, %)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① 여성가구주 가구		2,682,773 (18.5)	3,467,439 (21.7)	3,808,629 (22.2)	4,107,249 (22.6)	4,397,404 (23.1)	4,613,818 (23.5)	4,746,242 (23.9)
② 한부모 가구	모+미혼자녀 가구 (여성한부모 가구)	914,299 (6.3)	1,088,059 (6.8)	1,173,043 (6.8)	1,237,981 (6.8)	1,270,039 (6.7)	1,272,690 (6.5)	1,251,972 (6.3)
	부+미혼자녀 가구 (남성한부모 가구)	222,067 (1.5)	287,962 (1.8)	322,180 (1.9)	350,492 (1.9)	366,800 (1.9)	371,188 (1.9)	366,083 (1.8)

자료 : 『장래가구추계(2000~2030)』



제3절 분석자료

1. 분석자료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장래가구추계』와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가계동향조사』의 연계자료(이하 가계-경찰 연계자료)이다. 『장래가구추계』는 전체 여성가구주 가구의 규모를 파악하는데 활용되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장래가구추계』 자료에 나타나는 여성가구주 가구는 2010년 381만여 가구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2010.3) 원자료에 의해서도 여성가구주 가구는 포착이 가능한데,⁹⁾ 이 자료를 통해 파악되는 여성가구주 가구는 410만여 가구로 『장래가구추계』 자료보다 29만여 가구가 과다포착 된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를 대표하는 데는 『장래가구추계』 자료가 보다 적합하기 때문에 여성가구주 가구 규모추이를 제시하는데 이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편 여성가구주 가구의 고용 및 소득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는 데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및 가계-경찰 연계자료를 활용하였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동력조사로 취업자의 경제활동 특성을 파악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료이다. 가계-경찰 연계자료는 여성가구주 가구의 가계수지 및 주거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주지하다시피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개인을 record의 기본단위로 하고 있는 반면 가계조사는 가구가 record의 기본단위이다. 따라서 두 자료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변환과정을 필요로 한다.

<표 3-4>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가계동향조사』 개요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이하 경찰조사 또는 경찰자료)는 매월 15일, 전국 3만여 가구의 15세 이상 7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되는 대표적인 노동력조사로, 표본틀로 인구총조사 10% 표본조사구 중 섬, 시설 단위 조사구를 제외한 27,011개 조사구를 사용하였다. 표본규모는 전국 32,000가구의 15세 이상 약 7천만 개인이며, 조사항목은 인적사항 및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등이다. 『가계동향조사』(이하 가계조사 또는 가계자료)는 매월 전국의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되는 대표적인 소득 관련 조사로 전국의 9천 가구를 조사 대상으로 하여 가구주의 특성, 가구의 수입 및 지출, 가구구성 및 주거 특성을 조사한다.

본 연구에서 자료의 매칭은 경찰자료와 가계자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시기는 2009년으로 한정하였다. 자료의 결합방법과 결합결과를 논의하기 이전에 결합데이터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그림 3-3]은 경찰자료와 가계자료의 가구단위 매칭 현황이다. 2009년도 누적자료 현황은 경찰자료 368,400가구, 가계자료 85,197가구로 표본가구수의 차이로 인하여 경찰자료의 가구수가 가계자료의 가구수보다 4.3배가량 더 많다. 두 자료간 표본가구수의 차이로 인하여 연계자료는 가계동향에만 존재하는 가구인 ‘A’와 두

9)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에서 여성가구주는 가구주와의 관계와 성별 변수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표 3-4〉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가계동향조사』 개요

	『경제활동인구조사』 (2010년 기준)	『가계동향조사』 (2010년 기준)
조사주기	매월	매월
조사대상	매월 15일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인 자*	전국의 일반가구**
조사기간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일~토)	매월 1일~말일
표본설계 (모집단)	인구총조사(2005년) 10% 표본조사구 중 섬, 시설단위 조사구를 제외한 27,011조사구	인구총조사(2005년) 10% 표본조사구 중 섬, 시설단위 조사구를 제외한 27,011조사구
표본규모	32,000가구 약 7천만 개인	9,000 가구
조사표 항목	인적사항(6개), 확인항목(5개), 취업자 항목(6개), 실업자 항목(7개), 비경제활동인구 항목(4개), 기타(7개)	가구주 특성, 가구의 수입 및 지출, 가구구성 및 주거 특성

주 : * 군인 제외

** 농림어가, 외국인가구, 비혈연가구 등 가구의 소득과 지출 파악이 곤란한 가구는 제외

자료 모두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가구인 ‘B’, 경찰자료에만 존재하는 가구인 ‘C’가구로 구분된다. 각 영역별 가구수 및 비중은 ‘A’는 5,088가구로 연계가구의 1.4%를 차지하며, ‘B’는 80,109가구로 연계가구의 21.5%, ‘C’는 288,291가구로 연계가구의 77.2%를 차지한다. 이 중 본 연구의 최종분석 가구는 가계조사와 경찰조사에 모두 존재하는 영역인 ‘B’의 80,109가구이며, 두 자료 간 가구단위 매칭률은 21.5%이다.¹⁰⁾

373,488 가구	A : 가계동향만 존재 가구 5,088 가구 (1.4%)	85,197 가구
	B : 공통 존재 가구 80,109 가구 (21.5%)	
	C : 경찰만 존재 가구 288,291 가구 (7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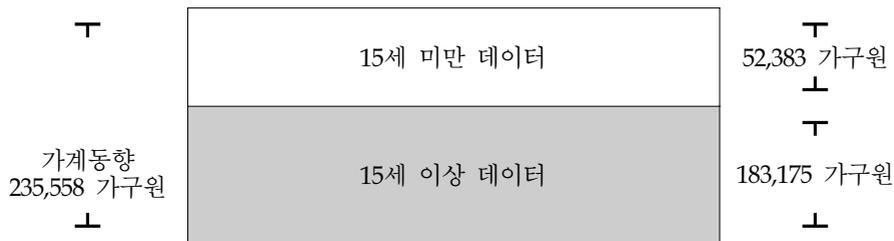
[그림 3-3]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가계조사』의 가구단위 매칭 현황: 2009년

10) 두 자료 간 매칭되는 가구는 가계자료 85,197가구 중 80,109가구이며, 경찰자료 368,400가구 중 80,109가구이다. 가계자료의 표본수가 경찰자료에 비해 훨씬 적기 때문에 가계자료의 가구는 거의 연계자료에 포함되나, 경찰자료의 가구는 288,291가구의 손실이 발생한다.



본 연구의 최종분석가구인 ‘B’의 경찰자료 80,109가구의 가구원 수는 182,679명이다. 그러나 가계자료는 개인단위가 아닌 가구단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별 자료의 매칭을 위해서는 가구단위 일치 자료인 80,109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정보를 세로로 정렬하는 데이터 변환과정을 요한다. 데이터 변환 결과, 가계자료의 개인단위 총 record 수는 80,109(가구단위)에서 235,558(개인단위)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그림 3-4]). 개인 단위로 변환된 가계자료를 경찰자료와 연계하기 위해 만 15세 이상 가구원만 선별하는 작업을 거쳤다. 개인단위로 변환한 235,558가구원 중 만 15세 이상 가구원은 183,175명임을 알 수 있다([그림 3-4] 참조). [그림 3-5]는 최종 분석자료이다. 가계자료와 경찰자료 중 일치하는 80,109가구를 분석 모집단으로 했을 때, 해당 가구의 가구원은 가계자료는 183,175가구원이며, 경찰조사는 182,679가구원으로 두 자료 간 496명의 가구원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두 자료 간 연계를 위해서는 두 자료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변수를 조작하여 임의의 key변수를 구성하여 매칭하는 작업을 거치게 된다. 가계자료와 경찰자료에 공통으로 존재하면서 key변수로 사용가능한 변수는 조사년, 월, 가구번호, 가구주와의 관계, 설명, 연령, 교육수준 등이다. 이러한 변수를 서로 다른 방법으로 조합하여 최적의 매칭 방법을 찾게 되는데, 본 연구는 ‘조사년’, ‘가구번호’,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연령’ 변수를 조작하여 key변수를 구성하고 두 자료 간 매칭에 사용하였다. 매칭결과 175,648가구원이 연계되어 총 92.3%의 매칭률을 보였다.



[그림 3-4] 가계자료의 변환 현황



[그림 3-5] 최종분석자료 : 개인

2. 분석대상

<표 3-5>는 분석대상자의 기본특성을 요약한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여성 가구주이다. 분석 자료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가계동향조사』간 연계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분석단위는 개인이면서 가구소득·소비 등 가구관련 특성도 분석자료에 포함한다. 여성가구주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준거집단(reference group)으로는 남성가구주와 여성배우자의 통계치를 제시하였다. 먼저 세 집단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여성가구주는 60세 이상이 35.1%, 50~59세 23.8%, 40~49세 22.6%, 30~39세 12.1% 순으로 60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남성가구주는 40~49세 30.8%, 30~39세 25.6%, 50~59세 20.4%, 60세 이상이 19.6% 순으로 나타난다. 집단별 교육수준은 여성가구주는 초졸 이하 39.8%, 고졸 30.9%, 대졸 이상 15.9%, 중졸 13.5% 순으로 초졸 이하의 비중이 매우 높다. 남성가구주는 고졸 42.1%, 대졸 이상 37.0%, 중졸 11.1% 순으로 여성가구주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은 편이다. 한편 여성배우자는 고졸 45.6%, 대졸 이상 26.5%, 초졸 이하 14.9%로 여성가구주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다.

한편 경제활동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가구주의 고용률은 61.5%로 남성가구주(86.1%)보다는 낮지만, 여성배우자(46.6%)보다는 14.9%p 높다. 여성가구주의 취업형태별 분포는 임금 77.1%, 비임금 22.9%이며, 남성가구주는 임금 71.8%, 비임금 28.2%로 여성가구주의 임금근로자 비중이 남성보다 5.3%p 높다. 반면 상용직 비중은 남성가구주가 51.5%인 반면 여성가구주는 25.8%로 여성가구주의 상용직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가구주의 성별 직업분포를 살펴보면, 여성가구주는 단순노무직 33.9%, 서비스직 22.3%, 판매직 14.4%로 단순노무직과 서비스·판매직의 비중이 높다. 반면 남성가구주는 전문·관리직 20.1%, 기능원 17.1%, 장치기계조작 조립원 19.7%로 전문·관리직의 비중이 높다. 여성배우자 중 취업자의 직업분포를 살펴보면 여성가구주와 마찬가지로 단순노무직(23.9%) 및 서비스·판매직(36.2%)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가구주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194.6만원, 남성가구주는 342.4만원이며, 총지출은 여성가구주 가구는 161만원, 남성가구주 가구는 276만원으로 남성가구주의 월평균 소득과 지출이 각각 148만원, 115만원 많다.

〈표 3-5〉 분석대상자의 기본특성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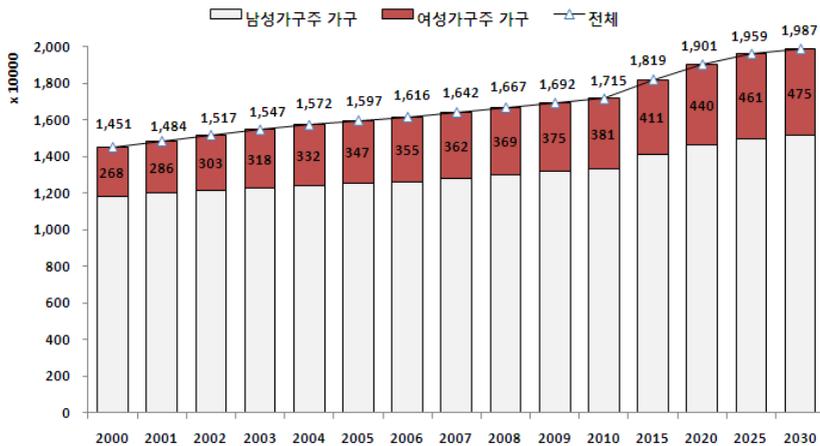
		여성가구주	남성가구주	여성배우자
인적특성	혼인상태			
	미혼	1,749 (8.9)	2,901 (5.1)	-
	유배우	7,574 (38.7)	52,062 (90.6)	51,200 (100.0)
	이혼·사별	10,267 (52.4)	2,524 (4.3)	-
	연령			
	29세 이하	1,251 (6.4)	2,055 (3.6)	3,192 (6.2)
	30~39세	2,367 (12.1)	14,717 (25.6)	16,372 (32.0)
	40~49세	4,429 (22.6)	17,726 (30.8)	15,012 (29.3)
	50~59세	4,668 (23.8)	11,723 (20.4)	9,418 (18.4)
	60세 이상	6,875 (35.1)	11,266 (19.6)	7,206 (14.1)
	교육수준			
	초졸 이하	7,795 (39.8)	5,691 (9.9)	7,647 (14.9)
	중졸	2,634 (13.5)	6,363 (11.1)	6,604 (12.9)
	고졸	6,051 (30.9)	24,178 (42.1)	23,364 (45.6)
	대졸 이상	3,110 (15.9)	21,255 (37.0)	13,585 (26.5)
	경제활동 특성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12,038 (61.5)	49,493 (86.1)	23,868 (46.6)
실업자		279 (1.4)	824 (1.4)	405 (0.8)
비경제활동		7,273 (37.1)	7,170 (12.5)	26,927 (52.6)
종사상 지위				
상용직		3,110 (25.8)	25,467 (51.5)	7,090 (29.7)
임시직		4,485 (37.3)	6,731 (13.6)	7,718 (32.3)
일용직		1,688 (14.0)	3,312 (6.7)	2,417 (10.1)
고용주		494 (4.1)	4,332 (8.8)	641 (2.7)
자영자		2,258 (18.8)	9,590 (19.4)	3,091 (13.0)
무급종사자		3 (0.02)	61 (0.1)	2,911 (12.2)
직업				
전문·관리직		1,705 (12.1)	10,520 (20.1)	4,768 (16.4)
사무직		1,272 (9.0)	7,659 (14.6)	4,488 (15.4)
서비스직		3,147 (22.3)	2,693 (5.2)	5,191 (17.9)
판매직		2,029 (14.4)	5,074 (9.7)	5,322 (18.3)
농림어업직		117 (0.8)	290 (0.6)	74 (0.3)
기능원		599 (4.3)	8,965 (17.1)	1,238 (4.3)
장치기계조작조립원		457 (3.2)	10,287 (19.7)	1,037 (3.6)
단순노무직		4,780 (33.9)	6,826 (13.1)	6,957 (23.9)
가구특성	소득			
	총소득(만원)	194.6만원	342.4만원	-
	총지출(만원)	161.0만원	276.3만원	-
	가계수지	33.6만원	66.1만원	-
	총계	19,590 (100.0)	57,487 (100.0)	51,200 (100.0)

주 : 가계-경황 연계자료를 활용하여,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은 수치임

제4절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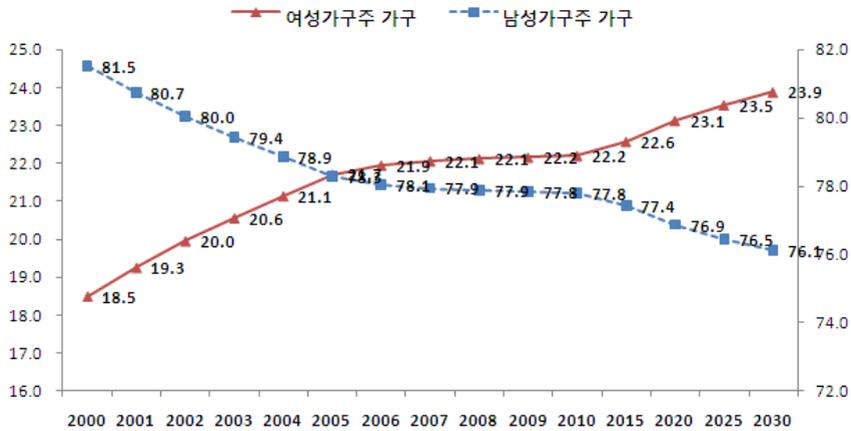
1. 규모추이

[그림 3-6]은 여성가구주 가구의 시기별 규모이다. 2000년 여성가구주 가구는 약 268만 가구였던 것이 2005년에는 약 347만 가구, 2010년에는 약 381만 가구, 2015년에는 약 411만 가구, 2030년에는 약 475만 가구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2010년의 여성가구주 가구는 2000년에 비해 약 1.4배가량 증가하였으며, 2030년에는 2000년에 비해 1.8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남성가구주 가구는 2000년 1,182만 가구, 2010년 1,334만 가구, 2015년 1,408만 가구, 2030년 1,512만 가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의 남성가구주 가구는 2000년에 비해 약 1.1배 증가하였으며, 2030년에는 2000년에 비해 1.3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에서 제시되었듯이 전체 가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00년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는 1,451만 가구였던 것이 2005년에는 1,597만 가구, 2010년에는 1,715만 가구, 2030년에는 1,987만 가구로 2030년에는 2000년에 비해 총 가구수는 1.4배가량 증가하였다. 2000-2030년 기간 중 총 가구수가 1.4배 증가한데 비해 여성가구주 가구는 1.8배 증가하여 여성가구주 가구의 증가률이 전체 가구 증가률을 상회함을 알 수 있다.



자료: 『장래가구추계(2000~2030년)』

[그림 3-6] 여성가구주 가구의 규모 추이 : 가구수



주 : 여성가구주는 기본축, 남성가구주는 보조축 기준임

자료 : 『장래가구추계(2000~203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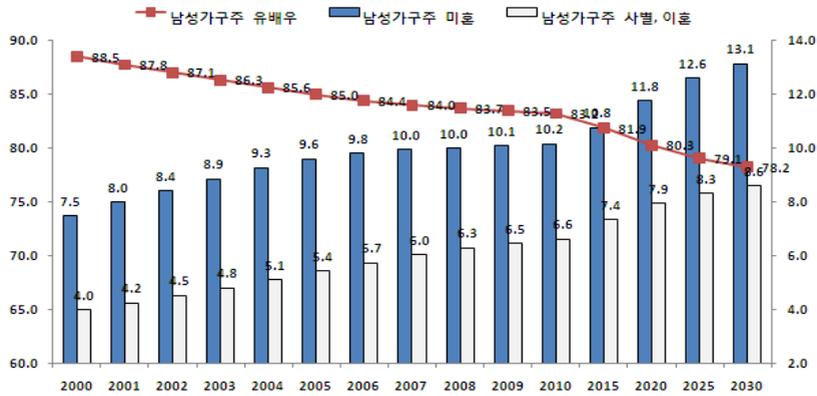
[그림 3-7] 여성가구주 가구의 규모 추이 : 비중

[그림 3-7]은 여성가구주 가구와 남성가구주 가구의 비중 추이이다. 여성가구주 가구는 2000년 18.5%, 2005년 21.7%, 2010년 22.2%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현재 5가구 중 1가구가 여성가구주 가구이다. 반면 남성가구주 가구는 2000년 81.5%로 5가구 중 4가구 남성가구주 가구였으나, 2005년 78.3%, 2010년 77.8%로 최근으로 올수록 전체 가구 중 남성가구주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해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여성가구주의 비중이 이같이 증가한 원인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이유는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한 여성노인 단독가구의 증가이다. 여성가구주 가구 중 60세 이상 노인여성 가구주 가구의 비중은 2000년 33.9%였으나, 2010년에는 35.8%로 증가했으며, 2030년에는 49.6%로 여성가구주 가구의 절반이 노인여성 단독가구일 것으로 전망된다(『장래인구추계』). 또 다른 요인으로는 이혼 및 미혼률의 증가로 인한 여성가구주 가구의 증가일 것이다. 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여성가구주 및 남성가구주의 혼인상태별 비중 추이를 살펴보았다.

[그림 3-8]은 남성가구주의 혼인상태별 비중 추이이다. 남성가구주의 혼인상태별 비중 중 남성 유배우 비중은 2000년 88.5%였던 것이 2005년 85.0%, 2010년 83.5%, 2030년에는 78.2%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미혼과 사별·이혼은 증가 추세인데, 남성 가구주 중 미혼의 비중은 2000년 7.5%였던 것이 2010년 10.2%, 2030년 13.1%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인다. 한편 남성가구주 중 사별·이혼 역시 2000년 4.0%, 2010년 6.6%, 2030년 8.6%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음으로 여성가구주의 혼인상태별 추이를 살펴보자. [그림 3-9]에 의하면 여성가구주 혼인상태별 비중은 사별·이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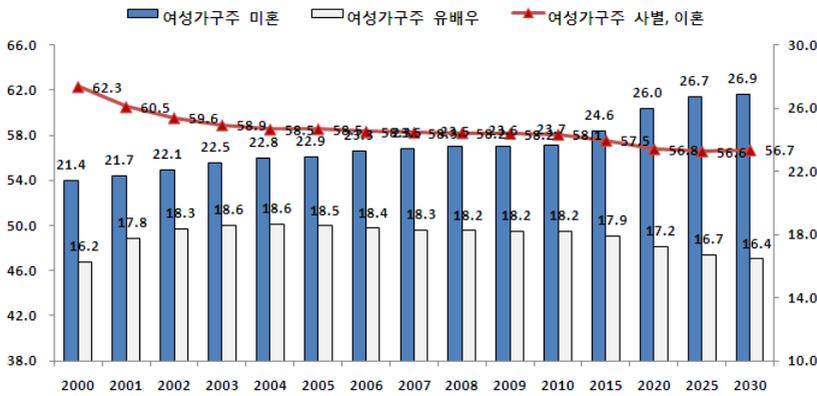
58.2%로 가장 높으며, 미혼은 23.7%, 유배우는 18.2%로 나타난다(2010년). 혼인상태별 비중을 통해 여성이 가구주가 된 요인은 무엇보다 사별·이혼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여성가구주 가구의 혼인상태별 시계열 추이를 살펴보면, 미혼은 2000년 21.4%, 2010년 23.7%, 2030년 26.9%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사별·이혼은 2000년 62.3%, 2010년 58.2%, 2030년 56.7%로 감소세임을 알 수 있다. 남성가구주 중 사별·이혼의 비중이 증가한 것과는 달리 여성가구주의 경우 사별·이혼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한다. 따라서 여성가구주의 증가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여성노인 및 미혼가구의 증가에 기인한다는 설명은 맞지만, 이혼율의 증가에 의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주 : 유배우는 기본축, 미혼과 사별·이혼은 보조축 기준임

자료 : 『장래가구추계(2000~2030년)』

[그림 3-8] 남성가구주의 혼인상태별 추이



주 : 사별·이혼은 기본축, 미혼과 유배우는 보조축 기준임

자료 : 『장래가구추계(2000~2030년)』

[그림 3-9] 여성가구주의 혼인상태별 추이



2. 경제활동상태

2.에서는 여성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여성가구주의 하위 범주는 여성가구주 가구, 여성한부모 가구, 모자가구이다. ‘여성가구주 가구’는 여성의 혼인상태와 관계없이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를 의미한다. ‘여성한부모 가구’는 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이며, ‘모자가구’는 모와 만 18세 미만 자녀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15세 이상 인구만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모자가구와 여성한부모 가구를 분류하기엔 어려움이 따른다. 정작 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15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가구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에서는 여성가구주 가구를 혼인상태별로 범주화하고, 각 유형별로 어떤 특성을 갖는가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표 3-6>은 여성가구주의 혼인상태별 연령 및 교육수준이다. 여성가구주는 혼인상태에 따라 미혼, 유배우, 이혼·사별의 세 범주로 나뉜다. 미혼 여성가구주의 경우 교육수준이 매우 높으며, 연령 또한 매우 젊다. 연계자료에서 나타나는 미혼 여성가구주의 연령 분포는 29세 이하가 59.2%, 30~39세 25.4%로 20~30대가 전체의 84.6%를 차지한다. 또한 미혼 여성가구주 중 대졸 이상은 57.4%, 고졸 37.0%로 교육수준이 매우 높다. 한편 이혼·사별의 경우 60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52.9%에 이르며, 50대는 24.5%, 40대는 18.7%로 나타난다. 고령자의 비중이 높은 만큼 교육수준은 낮은 편으로 초졸 이하는 57.0%, 고졸 23.9%, 중졸 14.7%로 나타난다. 여성가구주 중 유배우의 경우 남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이 있을 것으로 간주되는 집단으로 이들은 이혼·사별 여성가구주보다 젊고, 교육수준은 높은 편이다.

<표 3-6> 여성가구주의 혼인상태별 연령 및 교육수준

(단위 : %)

		미혼	유배우	이혼·사별
연령	29세 이하	59.2	2.5	0.3
	30~39세	25.4	20.4	3.7
	40~49세	8.5	31.2	18.7
	50~59세	3.0	27.7	24.5
	60세 이상	3.8	18.2	52.9
	계	100.0	100.0	100.0
교육수준	초졸 이하	2.1	25.2	57.0
	중졸	3.6	14.1	14.7
	고졸	37.0	38.9	23.9
	대졸 이상	57.4	21.8	4.4
	계	100.0	100.0	100.0

자료 : 가계-경황 연계자료

<표 3-7>은 여성가구주의 혼인상태별 경제활동상태이다. 여성가구주 중 미혼의 경우 취업자의 비중은 77.2%, 유배우는 72.2%, 이혼·사별은 50.8%로 연령대가 젊고 학력수준이 높은 미혼 여성가구주의 고용률이 가장 높으며, 이혼·사별 여성가구주의 고용률은 세 집단 중 가장 낮다. 한편 미혼 여성가구주의 실업자 비중은 2.8%로 유배우(1.1%)나 이혼·사별(1.5%)에 비해 실업자의 비중 또한 높다. <표 3-8>은 여성가구주의 혼인상태별 종사상 지위이다. 미혼 여성가구주의 경우 상용직의 비중이 세 집단 중 가장 높아 56.6%에 이른다. 반면 유배우 여성가구주는 27.8%, 이혼·사별 여성가구주는 15.8%로 나타난다. 반면 임시·일용직의 비중은 미혼 여성가구주는 29.1%인 반면 유배우 여성가구주는 35.5%, 이혼·사별 여성가구주는 41.2%로 이혼·사별 여성가구주의 임시직 비중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9>는 여성가구주의 혼인상태별 직·산업 분포이다. 미혼 여성가구주의 경우 전문·관리직의 비중은 35.7%로 이는 전체 취업자의 전문·관리직 비중인 약 20%보다 15.0%p 이상 높은 수준이다. 또한 미혼 여성가구주 중 사무직은 30.9%, 서비스·판매직은 27.1%로 나타난다. 한편 유배우 여성가구주의 직업분포는 서비스·판매직 34.3%, 단순노무직 32.9%, 전문·관리직 14.6% 순이며, 이혼·사별 여성가구주의 직업분포는 단순노무직 41.8%, 서비스·판매직 41.3%, 기능직 7.0% 순으로 나타난다. <표 3-10>은 여성가구주의 혼인상태별 근속기간 및 단기간 근로여부이다. 미혼 여성가구주의 경우 근속기간 1년의 비중이 57.7%로 가장 높고, 1년 미만은 28.9%인데 반해, 유배우 여성가구주는 1년 미만은 43.3%, 1개월 미만은 13.9%이며, 이혼·사별 여성가구주는 1년 미만 61.2%, 1개월 미만은

<표 3-7> 여성가구주의 혼인상태별 경제활동상태

(단위 : %)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	계
미혼	77.2	2.8	20.0	100.0
유배우	72.2	1.1	26.8	100.0
이혼·사별	50.8	1.5	47.7	100.0

자료 : 가계-경황 연계자료

<표 3-8> 여성가구주의 혼인상태별 종사상 지위

(단위 : %)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	자영자	무급 종사자	계
미혼	56.6	29.1	4.1	2.1	8.1	0.1	100.0
유배우	27.8	35.5	12.2	4.8	19.7	0.0	100.0
이혼·사별	15.8	41.2	18.5	4.0	20.5	0.0	100.0

자료 : 가계-경황 연계자료

〈표 3-9〉 여성가구주의 혼인상태별 직·산업 분포

(단위 : %)

	전문 관리직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농림 어업직	기능직	단순 노무직	계
미혼	35.7	30.9	27.1	0.0	1.8	4.4	100.0
유배우	14.6	8.5	34.3	0.4	9.3	32.9	100.0
이혼·사별	4.1	4.4	41.3	1.5	7.0	41.8	100.0

주: 직업분류 불가능 5,484은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 가계-경찰 연계자료

〈표 3-10〉 여성가구주의 혼인상태별 근속기간 및 단기간 근로여부

		미혼	유배우	이혼·사별
근속기간	1개월 미만	1.9	13.9	15.4
	1년 미만	28.9	43.3	61.2
	1년	57.7	36.4	21.4
	1년~2년	7.1	4.0	2.1
	2년~3년	3.2	1.9	0
	3년 초과	1.3	0.5	0
	계	100.0	100.0	100.0
단기간 근로여부*	36시간 미만	10.2	18.7	19.8
	36시간 이상	89.8	81.3	80.2
	계	100.0	100.0	100.0

주 : * 주당근로시간임

자료 : 가계-경찰 연계자료

15.4%로 근속기간이 매우 짧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여성가구주의 혼인상태별 36시간 미만 근로여부를 살펴보면 미혼 여성가구주 중 주당 36시간 미만 근로 비중은 10.2%에 불과한 반면 유배우 여성가구주는 18.7%, 이혼·사별 여성가구주는 19.8%로 이혼·사별 여성가구주의 5중 1명은 주당 36시간 미만의 단기간 근로 형태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 여성가구주의 혼인상태별 경제활동특성을 살펴보았다. 여성가구주 가구는 혼인상태, 연령, 자녀유무 및 자녀연령에 따라 이질적인 집단으로 분류된다. ‘여성가구주 가구’라 함은 본질적으로 생계부양자로서의 남성의 역할이 상실된 가구를 의미하기 때문에 유배우 여성가구주 가구를 정책 지원 대상으로 삼을 것이냐에 관한 논란이 있어왔다. 한편 미혼 여성가구주 역시 정책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기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들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의 한 유형으로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노동시장의 지위 또한 이전 세대 여성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여성가구주 가구



를 혼인상태별로 분류하여 노동시장 제 특성을 살펴본 결과 가장 지원이 필요한 집단은 이혼·사별에 의한 여성가구주 가구이다. 이들은 가장 고연령의 저학력 집단으로, 2명 중 1명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높으며, 근속기간이 매우 짧고, 주당 36시간 미만의 단기간 근로의 비중이 높다.

3. 소득·소비 및 주거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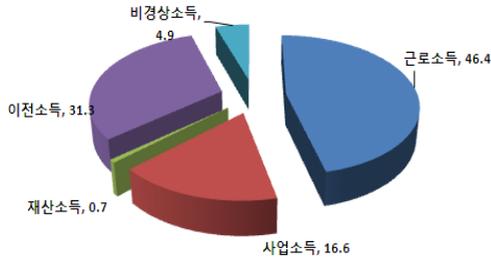
3.에서는 가구주의 성별 소득·소비 및 주거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3-11>은 가구주의 성별 소득분포이다. 가구주의 성별 소득수준을 소득구간별로 살펴보면 여성가구주 가구의 소득분포는 100만원 미만 36.3%, 100~200만원 28.1%, 200~300만원 15.9%, 300~400만원 9.2% 순으로 100만원 이하의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500만원 이상은 전체 여성가구주 중 5.7%에 불과하다. 한편 남성가구주 가구의 소득분포는 200~300만원 21.7%, 300~400만원 19.6%, 500만원 이상은 17.9% 순으로 여성가구주 가구에 비해 전반적으로 고소득 가구의 비중이 높다. 가구주의 성별 월평균 소득은 여성가구주 가구는 194.6만원, 남성가구주 가구는 342.4만원으로 남성가구주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여성가구주에 비해 147.8만원 더 많다.

<표 3-11> 가구주의 성별 소득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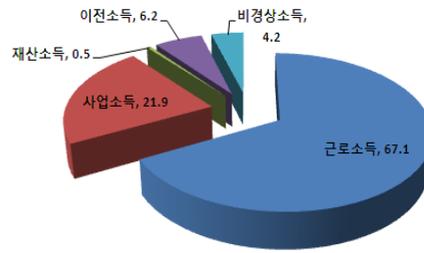
(단위 : %, 만원)

	여성가구주 가구	남성가구주 가구
100만원 미만	36.3	11.2
100~200만원	28.1	16.7
200~300만원	15.9	21.7
300~400만원	9.2	19.6
400~500만원	4.9	13.0
500만원 이상	5.7	17.9
계	100.0	100.0
월평균 소득	194.6만원	342.4만원

[그림 3-10], [그림 3-11]은 가구주의 성별 소득 항목별구성이다. 여성가구주 가구의 소득 항목별구성은 근로소득 46.4%, 이전소득 31.3%, 사업소득 16.6%, 비경상 소득 4.9% 순으로 근로소득의 비중은 낮고, 이전소득의 비중이 높다. 남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 67.1%, 사업소득 21.9%, 이전소득 6.2%, 비경상 소득 4.2% 순으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성가구주 가구에 비해 20.7%p 높으며,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성가구주 가구에 비해 25.1%p 낮다.



[그림 3-10] 여성가구주 가구의 소득 항목별구성



[그림 3-11] 남성가구주 가구의 소득 항목별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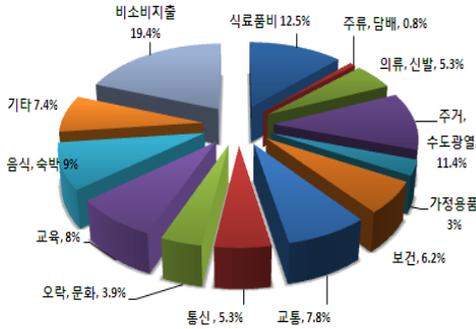
<표 3-12>는 가구주의 성별 소비분포이다. 가구주의 성별 소비수준을 소비구간별로 살펴보면 여성가구주 가구의 소비분포는 100만원 미만 39.9%, 100~200만원 34.0%, 200~300만원 15.0%, 300~400만원 5.7% 순으로 100만원 이하의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500만원 이상은 전체 여성가구주 중 2.9%에 불과하다. 한편 남성가구주 가구의 소비분포는 200~300만원 28.2%, 100~200만원 27.0%, 300~400만원 16.7%, 100만원 미만 12.1% 순으로 여성가구주 가구에 비해 전반적으로 소비수준이 높다. 가구주의 성별 월평균 소비는 여성가구주 가구는 161.0만원, 남성가구주 가구는 276.3만원으로 남성가구주 가구의 월평균 지출이 여성가구주에 비해 115.3만원 더 많다.

<표 3-12> 가구주의 성별 소비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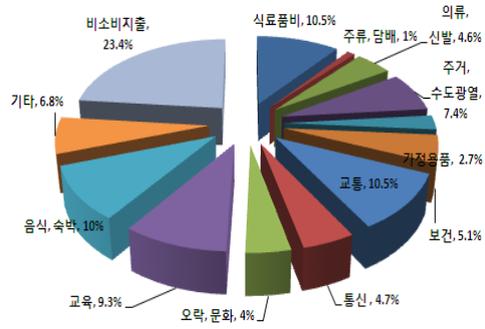
(단위 : %, 만원)

	여성가구주 가구	남성가구주 가구
100만원 미만	39.9	12.1
100~200만원	34.0	27.0
200~300만원	15.0	28.2
300~400만원	5.7	16.7
400~500만원	2.6	7.7
500만원 이상	2.9	8.3
계	100.0	100.0
월평균 소비	161.0만원	276.3만원

[그림 3-12]와 [그림 3-13]은 가구주의 성별 지출 항목별구성이다. 여성가구주 가구의



[그림 3-12] 여성가구주 가구의 지출 항목별구성



[그림 3-13] 남성가구주 가구의 지출 항목별구성

총지출 중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80.6%, 비소비지출은 19.4%이며, 남성가구주 가구는 소비지출 76.6%, 비소비지출 23.4%로 여성가구주 가구의 소비지출 비중이 남성가구주 가구에 비해 4.1%p 높다. 세부항목별 지출 구성을 살펴보면 여성가구주 가구는 식료품비 비중이 12.5%, 주거·수도광열 11.4%, 음식·숙박 9.0%, 교육 8.0%, 교통비 7.8% 순으로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한편 남성가구주 가구는 식료품비와 교통비가 각각 10.5%, 음식·숙박비 10.0%, 교육비 9.3%, 주거, 수도광열비 7.4% 등으로 여성가구주 가구에 비해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은 반면 교육비 및 음식·숙박비, 교통비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3>은 가구주의 성별 가구유형 및 주택점유 형태이다. 노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성가구주 가구는 21.8%, 남성가구주 가구는 7.3%로 이는 여성가구주 다섯 가구 중 한 가구 꼴로 노인가구임을 의미한다. 한편 여성가구주 가구 중 모자가구(모+18세 미만 자녀)의 비중은 13.6%, 맞벌이 가구 비중은 5.3%이다. 여성가구주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여성이 가장 역할을 하는 가구 중 혼인상태가 유배우이며, 남성이 경제적 소득을 올리는 가구로, 전체 여성가구주 가구 중 맞벌이 비중이 5.3%에 불과하다는 것은 유배우 여성가구주 여성이 남편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함을 의미한다. 가구주의 성별 세대구분을 살펴보면 여성가구주 가구는 1세대 47.3%, 2세대 47.7%, 3세대 이상 5.1%로, 1세대와 2세대의 비중이 거의 유사하다. 이는 여성가구주 중 고령자의 비중이 높은 데에 기인한다. 한편 남성가구주 가구는 2세대 66.1%, 1세대 27.6%, 3세대 이상 6.3%로 여성가구주 가구에 비해 2세대의 비중이 높고 1세대의 비중은 낮다.

다음으로 가구주의 성별 주택점유 형태를 살펴보면 자가의 비중은 여성가구주는 55.2%, 남성가구주는 67.4%인 반면 월세는 여성가구주 19.5%, 남성가구주는 11.1%로 여성가구주 가구는 남성가구주 가구에 비해 자가의 비중은 12.2%p 낮고, 월세의 비중은 8.4%p 높다.

〈표 3-13〉 가구주의 성별 가구유형 및 주택점유 형태

(단위 : %)

		여성가구주 가구	남성가구주 가구
가구유형	노인가구 여부		
	노인가구	21.8	7.3
	비노인가구	78.2	92.7
	모자가구 여부		
	모자가구*	13.6	-
	비모자가구	86.4	-
	맞벌이가구 여부		
	맞벌이가구	5.3	39.6
	비맞벌이가구	94.7	60.4
	세대구분		
	1세대가구	47.3	27.6
	2세대가구	47.7	66.1
	3세대 이상 가구	5.1	6.3
	계	100.0	100.0
주택점유형태	자 가	55.2	67.4
	전 세	17.0	16.6
	월 세	19.5	11.1
	기 타	8.3	4.9
	계	100.0	100.0

주: *모와 18세 미만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임

4. 빈곤결정요인

4.에서는 성별 빈곤율과 빈곤 여성가구주의 특성을 살펴보고, 성별 빈곤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Diana Pearce(1976)가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 개념을 도입한 이래 빈곤 현상에 성(gender)이 주요한 변수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후 많은 연구자들은 빈곤의 여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찾고자 시도하였다(Peterson, 1987; MacLanahan, 1989; Northrop, 1990; Casper, Lynne M. et al., 1994). 빈곤의 여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가족구조, 노동시장 상황, 복지 프로그램 등이 빈곤의 여성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규명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족구조 요인으로는 이혼 및 미혼모의 증가, 여성의 자녀 양육 책임 등을 들 수 있으며, 노동시장 요인으로는 노동시장의 분절, 노동시장 내 성차별, 마지막으로 복지 프로그램의 개혁 등이다.

여성의 빈곤화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지위를 결정해야 한다. 빈곤선을 결정하는 기준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절대적 빈곤’의 개념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의 절대적인 양을 정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빈곤으로 정의한다. 이 기준을 사용하는 예로는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사용하는 최저생계비를 이용한 빈곤계층 판정이나, *Oshansky's poverty scale*을 사용한 미국의 공식빈곤선 등이 해당한다. 절대적 빈곤선은 한 시점에서 결정되고 이후에는 매년 물가 변화만을 고려하여 조정되는 특성을 갖는다. 둘째, '상대적 빈곤'의 개념이다. 상대적 빈곤 개념은 보통 전체 인구의 중위소득 1/2를 기준으로 빈곤선을 설정한다. 상대적 빈곤은 소득 변화에 따라 매년 조정되며, 인구전체의 소득수준이 상이한 국가 간의 빈곤을 비교 시 유용하게 사용된다.

절대적 빈곤은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작성된다. <표 3-14>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¹¹⁾와 본 연구 분석자료에서 나타난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이다. 표에 제시된 바에 따르면 1인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약 49만원이며, 2인 가구는 약 84만원, 3인 가구는 약 108만원, 4인 가구는 약 133만원, 5인 가구는 약 157만원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 자료를 통해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을 산출한 결과,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약 128만원(여성가구주 106만원, 남성가구주 179만원), 2인 가구는 약 234만원(여성가구주 202만원, 남성가구주 246만원), 3인 가구는 약 343만원(여성가구주 274만원, 남성가구주 359만원), 4인 가구는 약 398만원(여성가구주 298만원, 남성가구주 398만원), 5인 가구는 약 429만원(여성가구주 324만원, 남성가구주 426만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가구주와 남성가구주의 가구규모별 월평균 소득은 모두 최저생계비를 훨씬 상회하며, 모든 가구규모에서 남성가구주의 월평균 소득이 여성가구주보다 높다.

<표 3-15>는 성별 빈곤율이다. 절대빈곤율을 사용하여 빈곤율을 추정한 결과, 전체 빈곤율은 11.3%, 여성가구주는 24.8%, 남성가구주는 9.9%로 여성가구주의 빈곤율은 남성가구주 빈곤율보다 14.9%p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여성가구주와 남성가구주의 총소득을 가구원수로 나눈 소득액은 여성가구주는 약 97만원, 남성가구주는 약 113만원으로 남성가구주 가구의 소득액이 여성가구주에 비해 약 16만원 많다.

<표 3-14>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2009년)와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단위: 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최저생계비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여성가구주	1,059,217	2,016,348	2,738,750	2,984,749	3,238,705
남성가구주	1,789,501	2,457,734	3,594,627	3,983,565	4,259,851
전체	1,279,705	2,335,100	3,430,825	3,984,159	4,294,746

주 :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의 발표자료(2009)이며,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은 연계자료에서 산출된 수치임

11) 분석자료의 시점이 2009년이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또한 2009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표 3-15〉 성별 빈곤율

(단위: %, 원)

	여성가구주	남성가구주	전체
절대 빈곤율	24.8%	9.9%	11.3%
총소득/가구원수	974,678	1,129,889	1,069,801

그렇다면 빈곤 여성가구주는 비빈곤 여성가구주에 비해 어떤 특성을 갖는가? <표 3-16>은 빈곤 여성가구주의 특성을 비빈곤 여성가구주와 비교·제시한 것이다. 빈곤 여성가구주의 평균연령은 61.4세로 비빈곤 여성가구주의 평균연령인 51.0세에 비해 무려 10.4세가 많다.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빈곤 여성가구주 중 65세 이상은 51.1%를 차지하여 빈곤 여성가구주의 과반수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가구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교육수준 분포를 살펴보면 빈곤 여성가구주는 비빈곤 여성가구주에 비해 학력수준이 매우 낮다. 빈곤 여성가구주 중 초졸 이하는 63.8%인 반면 전문대졸 이상은 5.1%에 불과하다. 비빈곤 여성가구주는 전문대졸 이상이 19.4%로 전체 비빈곤 가구의 1/5 수준이다. 특히 빈곤 여성가구주의 혼인상태를 보면 이혼·사별이 66.2%로, 비빈곤 가구 중 이혼·사별 비중(37.6%)에 비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비빈곤 여성가구주의 50.9%는 유배우인 반면 빈곤 여성가구주 중 유배우 비율은 26.8%이다.

가구 당 취업자 수는 빈곤 여성가구주는 0.4명, 비빈곤 여성가구주는 1.1명으로 비빈곤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최소 1명이 취업상태임을 알 수 있다. 여성가구주 중 취업자의 노동시장 특성을 살펴본 결과, 빈곤 여성가구주 중 상용직은 7.3%에 불과한 반면 임시·일용직은 73.1%로 빈곤 여성가구주는 대부분 임시·일용직 형태로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비빈곤 여성가구주 중 상용직은 26.4%, 임시·일용직은 51.5%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가구특성을 살펴보면, 빈곤 여성가구주의 평균 가구원 수는 1.8명으로 비빈곤 여성가구주(2.2명)보다 가구규모가 작다. 월평균 소득은 빈곤 여성가구주는 43만원에 불과한 반면, 비빈곤 여성가구주는 244만원으로 두 집단 간 소득격차는 무려 200여만원에 이른다. 한편 빈곤 여성가구주 가구 중 노인가구 비중은 44.9%로 비빈곤 여성가구주 가구의 노인가구 비중(14.2%)보다 30.7%p 높다. 모자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빈곤 여성가구주 가구 중 모자가구는 7.6%, 비빈곤 여성가구주 가구는 15.5%로 비빈곤 여성가구주의 모자가구 비중이 높다. 이는 비빈곤 여성가구주에 비해 빈곤 여성가구주의 연령이 높고, 노인가구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빈곤 여성가구주 가구의 세대유형은 1세대 62.5%, 2세대 33.7%, 3세대 이상 3.8%로 1세대의 비중이 높다.



〈표 3-16〉 분석대상자의 특성

	빈곤 여성가구주	비빈곤 여성가구주
연령		
평균연령	61.4세	51.0세
교육수준		
혼인상태		
취업자 수	0.4명	1.1명
취업형태		
가구원 수	1.8명	2.2명
월평균 소득	43만원	244만원
노인가구 여부	44.9%	14.2%
모자가구 여부	7.6%	15.5%
세대유형		
N	4,850	14,740

자료 : 가계-경황 연계자료



이 논의에서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바는 빈곤결정요인에 있어서 성차이다. 빈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빈곤결정요인을 크게 개인의 인적자본 특성, 가구 및 가족구성 특성, 노동시장 특성의 세 가지 차원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크게 인적자본 특성(성, 연령, 교육수준), 가구 및 가족구성 특성(혼인상태, 가구규모, 모자가구 및 노인가구 여부), 노동시장 특성(취업자수, 종사상 지위, 근로소득 유무)의 세부 지표를 빈곤결정모형의 독립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종속변인은 빈곤여부이며, 분석방법으로는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사용하였다.

<표 3-17>은 분석결과이다. 우선 전체 분석대상자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도록 하자. 빈곤에 긍정적(positive)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으로 연령이 높을수

<표 3-17> 빈곤결정요인

	model I			model II			model III		
	전체			여성			남성		
	β	Wald X^2	Exp(β)	β	Wald X^2	Exp(β)	β	Wald X^2	Exp(β)
여 성	-0.22**	20.65	0.74						
연 령	0.01***	13.36	1.01	0.01*	3.86	1.01	0.23	3.04	0.89
교육수준	-0.32***	121.3	0.85	-0.33**	51.4	0.85	-0.38**	49.6	0.86
유 배 우	-0.41**	25.6	0.69	-0.2**	21.26	0.72	-0.2	13.2	1.12
가구원수	-0.38**	30.4	0.7	-0.22**	18.65	0.89	-0.23**	8.29	0.89
모자가구	1.2	24.6	0.64	0.9	22.6	0.68			
노인가구	2.3**	27.1	0.78	1.8**	28.2	0.85	1.4	22.3	0.02
취업자수	-1.6***	18.9	0.9	-0.6**	68.9	0.88	-0.67**	44.2	0.78
상 용 직	-1.45**	30.2	0.78	-1.89***	31.58	0.49	-1.99**	168.7	0.23
임사일용직	-0.31*	7.5	0.68	-0.09	0.31	0.87	-0.52***	15.32	0.42
자 영 업	-0.8**	13.5	0.42	-1.44	15.66	0.28	-1.65	25.6	0.31
근로소득	-2.3***	22.3	0.88	-3.6**	36.8	0.85	-2.7***	45.88	0.86
절 편	2.8***	45.87	6.01	1.78***	26.45	5.69	2.79***	25.88	6.89
LR	1645.84***			946.58***			685.23***		
d.f.	12			11			10		
N	175,610			19,590			57,480		

*p<.05, **p<.01, ***p<.001

록 빈곤 확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노년기에 이를수록 근로소득의 손실로 인한 총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반면 빈곤과 부정적(negative)인 관계를 갖는 변수는 교육수준, 유배우 여부, 가구규모, 취업자 수, 상용직 여부, 근로소득 여부로 나타난다. 즉 교육수준이 높고, 유배우이며, 가구규모가 클수록 빈곤 확률은 낮아진다. 또한 가구에 취업자 수가 많고, 상용직으로 종사하며,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빈곤 확률은 낮다. 특히 정규직의 경우 미취업자에 비해 빈곤 확률이 22% 낮으며, 자영업자로 근로할 경우 비취업자에 비해 빈곤 확률은 58% 낮다.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인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빈곤 확률은 31% 낮으며, 노인가구인 경우 비노인가구에 비해 빈곤 확률은 22% 높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보다 빈곤 확률은 12% 낮다. 한편 성별 빈곤가능성은 다른 변수의 영향력이 통제된 상태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빈곤 확률이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여성의 빈곤률이 남성보다 높은 것은 여성의 혼인상태나 고용형태 등에 의한 것이며, 이러한 요인의 영향력을 통제하고 나면, '성'과 빈곤의 관계는 상쇄됨을 알 수 있다.

<표 3-17>을 통해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바는 빈곤결정요인의 성차이다. 우선 여성의 빈곤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연령, 노인가구 여부는 빈곤에 긍정적(positive)인 영향력을 미치는 반면, 교육수준, 유배우 여부, 가구원 수, 취업자 수, 상용직 여부, 근로소득 여부 등은 빈곤에 부정적(negative)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각 요인별 빈곤 이행 확률을 살펴보자. 노인가구인 경우 비노인 가구에 비해 빈곤 확률은 15% 높으며, 유배우인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빈곤 확률은 28% 낮다. 가구규모와 취업자 수 역시 빈곤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데, 취업자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빈곤 확률은 12% 낮다. 한편 정규직으로 근로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빈곤 확률은 각각 51%, 15% 낮다.

다음으로 남성가구의 빈곤이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남성가구의 경우 연령과 노인가구 여부, 혼인상태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교육수준, 가구규모, 취업자 수, 상용직 여부, 임시·일용직 여부, 근로소득 여부는 여성가구와 동일하게 빈곤이행에 부정적(negative)인 영향력을 미친다. 구체적으로 각 요인별 빈곤 이행 확률을 살펴보면, 상용직으로 근로할 경우 미취업자보다 빈곤 확률은 77% 낮으며, 임시·일용직으로 근로할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빈곤 확률은 58% 낮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보다 빈곤 확률은 14% 낮다.

빈곤결정요인을 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나타나는 차이점은 다음으로 요약된다. 첫째, 여성의 경우 남성과는 달리 연령이 빈곤 확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노인가구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빈곤에 빠질 확률은 15%가량 높다. 이는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평균수명이 길기 때문에 노령기에 독신으로 살아가는 기간이 길며, 이 기간



중 배우자 사별로 인한 소득의 상실은 이들의 경제적 여건을 크게 악화시키기 때문에 풀이된다. 둘째, 여성가구주의 빈곤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혼인상태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최근으로 올수록 상승하였고,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 또한 과거에 비해 많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혼여성들이 남편의 소득에 의존하고 있다. 남성의 경우 혼인지위가 빈곤여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지만, 여성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빈곤에 빠질 확률은 무려 28%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의 노동시장 지위가 과거에 비해 많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빈곤지위에 혼인지위가 미치는 영향력은 여전히 크다. 셋째, 남성의 경우 노동시장 지위가 빈곤이행에 미치는 영향력이 나타나지만, 여성의 경우 미취업과 임시·일용직 간 빈곤 확률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다. 즉 남성은 정규직인 경우 미취업보다 빈곤 확률이 77% 낮아지며, 임시·일용직인 경우 미취업보다 빈곤 확률이 58% 낮아져 노동시장 지위가 빈곤이행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반면 여성 임시·일용직은 미취업과 빈곤확률에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여성의 전반적인 노동시장 지위가 남성보다 열위에 있으며, 여성 임시·일용직의 경우 그 경제적 보상이 매우 미비한 수준임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성별 빈곤율 차이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성별 빈곤율 차이에 개별 독립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성별 빈곤율을 산출하고 남성 대비 여성 빈곤율의 상대적 비율을 구한다. 다음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독립변수의 성격을 갖는다는 가정 하에 여성 빈곤율을 산출하고 이를 남성 빈곤율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여성 빈곤확률에 개별 독립변수들이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의미하는 로지스

〈표 3-18〉 성별 빈곤율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남성 독립변수 투입 시 추정 빈곤율		
	추정빈곤율	남성 대비 여성빈곤율	차이
	0.248	2.5	
연령	0.241	2.39	0.11
교육수준	0.215	1.31	1.19
가구원수	0.233	2.23	0.27
취업자수	0.289	2.78	-0.28
유배우자	0.21	2.4	0.1
근로형태	0.212	2.18	0.32
정규직	0.2	2.23	0.27
임시·일용직	0.25	2.4	0.1
자영업자	0.26	2.71	-0.21

틱 회귀계수와 남성의 개별 독립변수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독립변수 변화 시 기대되는 여성의 빈곤율을 추정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남성 대비 여성의 빈곤율을 산출하였다.

<표 3-18>은 남성 평균 투입 시 추정 빈곤율이다. 독립변수들 중 빈곤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교육수준으로 여성과 남성의 교육수준이 같다고 가정하였을 때, 여성의 빈곤율은 24.8%에서 21.5%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되며, 남성대비 여성의 빈곤율도 2.5%에서 1.31%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여성과 남성가구주 가구의 취업자수가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경우, 여성의 빈곤율은 24.8%에서 28.9%로 오히려 높아질 것으로 추정되며, 여성과 남성의 유배우 비율이 같다고 가정했을 경우, 여성의 빈곤율은 24.8%에서 21.0%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시장의 근로형태는 성별 빈곤율 차이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 여성과 남성의 정규직 비중이 같다고 가정한다면 여성의 빈곤율은 24.8%에서 20.0%로 4.8%p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남성대비 여성 빈곤율도 2.5%에서 2.23%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여성과 남성의 임시·일용직 비중이 동일하다고 가정한 경우, 여성의 빈곤율은 24.8%에서 25.0%로 약간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성별 빈곤율의 차이는 주로 인적자본의 차이나 노동시장 특성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제5절 결 론

본 연구는 여성가구주 가구의 고용 및 소득 현황을 제시하고,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여성가구주 가구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가구주의 경제활동특성 및 가구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대상자를 식별하고, 적합한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대상자에 대한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성가구주 가구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성가구주 개인의 노동시장 특성 및 가구소득 소비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여성가구주가 어떠한 개인특성을 갖고 있으며,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노동시장 정착도는 어떠한지, 직·산업분포 및 임금수준은 어떠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필요로 한다. 또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소득수준 및 빈곤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바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여성가구주 가구는 약 381만 가구(전체 가구 중 22.2%)로, 2000년에 비해 약 1.4배 증가하였으며, 2030년에는 2000년에 비해 1.8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장래가구추계』). 2000-2030년 기간 중 총 가구수는 1.4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여성가구주 가구는 1.8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어 전체 가구주 증가세에 비해 여성가구주의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중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첫째,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한 여성노인 단독가구의 증가이다. 여성가구주 가구 중 60세 이상 노인여성 가구주 가구의 비중은 2000년 33.9%였으나, 2010년에는 35.8%, 2030년 49.6%로 2030년에는 여성가구주 가구의 절반이 노인여성 단독가구일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이혼 및 미혼률의 증가로 인한 여성가구주 가구의 증가이다. 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여성가구주 및 남성가구주의 혼인상태별 비중 추이를 살펴보았다. 여성가구주의 혼인상태별 비중은 이혼·사별이 전체의 58.2%로 미혼이나 유배우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여성가구주의 혼인상태별 비중 추이는 미혼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사별·이혼은 감소 추세로, 여성가구주의 증가가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여성노인 및 미혼가구의 증가에 기인한다는 설명은 맞지만, 이혼율의 증가에 의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여성가구주의 특성은 가계-경황 연계자료를 활용하여 개인단위의 경제활동특성과 가구단위의 가구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여성가구주를 혼인상태별로 미혼, 유배우, 이혼·사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미혼 여성가구주의 학력수준이 가장 높고, 연령이 가장 적은 반면 이혼·사별 여성가구주의 학력수준이 가장 낮고, 연령대는 가장 높다. 여성가구주의 혼인상태별 경제활동상태는 미혼 77.2%, 유배우 72.2%, 이혼·사별 50.8%로 여성가구주의 고용률은 전체 여성의 고용률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종사상 지위나 직·산업 분포, 근속기간, 단기근로 여부 등 노동시장의 질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미혼여성 가구주를 제외한 여성가구주의 노동시장 내 위치는 그리 좋지 않은 편으로 나타난다. 여성가구주 가구를 혼인상태별로 분류하여 노동시장 제 특성을 살펴본 결과, 가장 지원이 필요한 집단은 이혼·사별에 의한 여성가구주 가구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가장 고연령·저학력 집단으로, 2명 중 1명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높으며, 근속기간은 매우 짧고, 주당 36시간 미만의 단기근로의 비중이 높다.

한편 여성가구주 가구 중 노인가구의 비중은 21.8%로 남성가구주 가구의 노인가구 비중(7.3%)에 비해 3배가량 높고, 여성가구주 가구 중 모자가구(모와 18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가구)의 비중은 13.6%에 이른다. 여성가구주 가구 중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5.3%에 불과한데, 이는 유배우 여성가구주 가구라 하더라도 남편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 매우 미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가구주 가구의 세대구성은 남성가구주 가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남성가구주 가구가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의 비중(66.1%)이 높은 것에 반해 여성가구주 가구는 부부로 구성(1인가구 포함)된 1세대 가구의 비중(47.3%)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여성가구주 가구는 남성가구주 가구에 비해 주택소유 비중은 낮은 반면 월세 비중은 높다. 가구특성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가구의

소득 및 소비 현황일 것이다. 여성가구주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4.6만원으로 남성가구주 가구의 342.4만원에 비해 147.8만원 적으며, 여성가구주 가구의 월평균 지출은 161.0만원으로 남성가구주 가구의 276.3만원에 비해 115.3만원 적다. 가구주의 성별 소득구성을 보면 남성가구주 가구는 총소득 중 근로소득의 비중이 67.1%에 이르나, 여성가구주 가구의 근로소득은 46.4%, 이전소득 31.3%로 남성가구주 가구에 비해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반면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다.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소비양상은 다르게 나타난다. 여성가구주 가구는 식료품비 12.5%, 주거·수도광열 11.4%, 음식·숙박 9.0% 순으로 소비지출 항목 중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한편 남성가구주 가구는 식료품비와 교통비가 각각 10.5%, 음식·숙박비 10.0%, 교육비 9.3% 등으로 여성가구주 가구에 비해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반면 교육비 및 음식·숙박비, 교통비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높다.

빈곤의 여성화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성별 빈곤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남녀 공히 빈곤결정에 긍정적인(positive)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이며, 빈곤결정에 부정적(negative)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육수준, 혼인지위, 가구규모, 취업자 수, 근로소득 여부 등으로 나타난다. 빈곤결정요인을 성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연령이 빈곤 확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여성가구주의 빈곤화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보다 혼인상태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과거에 비해 많이 상승하였고,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 또한 많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남편의 소득에 의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력은 남성에 비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여성의 노동시장 지위가 전반적으로 남성보다 열위에 있으며, 그 경제적 보상이 매우 미비한 수준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본 연구는 고용-소득 연계자료를 통해 여성가구주 가구의 현황을 분석하여 집단별 특성을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대상자를 식별하는 목적을 갖는다. 여성가구주 가구 중 가장 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무엇보다도 18세 이하의 미혼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모자가구일 것이다. 그러나 자료의 한계상 모자가구를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¹²⁾ 여성가구주 가구를 혼인상태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을 알아보고, 남성가구주 가구를 준거집단(reference group)으로 삼아 가구특성을 비교·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고용-소득 연계자료를 활용하여 여성가구주의 특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는 의의를 갖으나, 분석 범위가 제한적이었고 자료의 한계상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은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점은 향후 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12)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는 만 15세 이상만 조사 대상에 포함하기 때문에, 만 15~18세 자녀를 양육하는 모자가구의 식별만 가능하다. 따라서 이는 매우 제한적인 분석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홍백의·김혜연(2008), 빈곤의 여성화 경향 및 원인, 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석재은 외(2006), 『취약계층 여성정책의 발전방향 연구』, 여성가족부.
- 정미숙(2006), 『저소득 여성 가구주의 가족경험과 빈곤화 과정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혜원·윤자영(2009), 『여성가장 가구의 고용과 빈곤 연구』, 노동부.
- 박시내(2003), 독거노인가구의 생활실태와 빈곤, KLIPS Research Brief, 한국노동연구원.

2. 국외문헌

- Casper, Lynne M. et al. 1994. "The Gender-Poverty Gap: what we can learn from other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9.
- Edwards, R & Duncan, S. 1996. "Rational economic man or lone mother in context?" In Elizabeth Bortolaia Silva ed. *Good Enough Mothering?* Routledge.
- Fukuda-Parr, S. 1999. "What does feminization of poverty mean? It isn't just lack of income". *Feminist Economics* 5(2)
- Kabeer, N. 1994. "Beyond the Poverty Line: Measuring Poverty and Impoverishing Measures". *Reversed Realities : Gender Hierarchies in Development Thought*. Verso.
- MacLanahan, Sara S; Sorensen, Annemette; Watson, Dorothy. 1989. "Sex Differences in Poverty, 1950~1980", *Signs* 15.
- Northrop, Emily M. 1990. " The Feminization of poverty: The Demographic Factor and the composition of economic growth". *Journal of Economic Issues* 24.
- Pearce, D. 1990. "Welfare is not for Woman: why the war on poverty cannot conquer the feminization of poverty". in Linda Gordon ed. *Woman, The State and Welfare*.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Peterson, J. 1987. "The Feminization of poverty: Woman, Work and Welfare." *Urban and Social Change Review* 11.
- Ruspini, E. 2001. "The study of woman's deprivation: how to reveal the gender dimension of poverty". *Social Research Methodology*. Vol.4. No.2.
- Shaffer, P. 2002. "Poverty Naturalized: Implication for Gender". *Feminist Economics* 8(3)

